

욥기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입니다.

욥의 탄식(욥 3) [00:27-6:10]

대화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장에는 전체 섹션을 시작하는 욥의 애가가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에서 욥의 탄식은 책의 끝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두 가지 반응과 부분적으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책에서 비슷한 균형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의 한탄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애가의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얻었지만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곡하게 작동하는 " *barak* " 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qalal* 인데 , 능력의 단어가 포함된 주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일에 대해 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그는 그날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저주"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단어입니다. *Barak*은 완곡 어법으로, *qalal*은 권능의 말씀이 담긴 주문이지만

그날 저주는 'arar'이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 질서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라르' 입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모두 "저주"로 번역되지만 뉘앙스가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그는 또한 Leviathan을 깨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런 일에 손을 대는 점쟁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리바이어던은 비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옴은 혼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탄생일에 맞서 리워야단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애도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궁에서 곧장 저승으로 갔거나 사산아처럼 유산했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텍스트의 전개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현재의 삶의 비참함과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돌아봅니다.

물론 애가는 옴이 드리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 모두에게 영혼을 찢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때때로 옴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실제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적 관점에서 서사와 프롤로그에서 연설의 직접적인 담화로 장르의 전환을 통해 프롤로그와 연설 사이의 전환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신학적 강조점을 제공합니다. 애도에서 우리는 프롤로그 섹션의 답변에서 확신에 찬 욕에서 이제 혼란스럽고 질문하는 욕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욕은 슬픔에 잠기며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영원에 대한 희망도, 상급과 형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이스라엘인인 욕은 훨씬 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죽음이다. 해결이 아니라 탈출이다. 이 시점에서 삶도 죽음도 그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지만, 그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유를 묻는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시작했음을 봅니다.

11, 12, 16, 20, 23절, 왜? 왜? 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욕기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질문에 답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질문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욕의 탄식은 그가 실제로 자신이 얻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암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신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욥의 충절 [6:10-8:00]

이제 욥이 유지하는 이 충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충절은 1장과 2장에 있는 그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설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결성은 그의 의로움이 그 자체로 서 있다는 그의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의를 위한 것이지 그가 얻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그가 유지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난은 명백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반응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그가 잘못했다고 비난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탁자 위의 질문이다. 욥의 의로움, 사심 없는 의로움, 그리고 욥의 성실함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에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 소개 [8:00-8:20]

이제 대화 의 1주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4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이 말합니다. 욥은 첫 번째 주기인 4-14장에서 응답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4:6[8:20-10:15]

이 주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책에 중요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에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4장 6절에 있는 4장 6절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욥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건함이 당신의 확신이 되고 당신의 흠 없는 길이 당신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이 자칭일 뿐이며 그의 확신이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의 행실이 흠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욥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따라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욥의 경건함이나 그의 흠 없는 면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충분할 것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매우 어려운 히브리어를 번역하려는 시도의 복잡성 중 일부에 대한 예일 뿐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4:17[10:15-14:21]

또한 엘리바스의 연설에서 우리는 그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가 이 환상에서 보고하는 환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계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 경험의 전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가 생각하는 위대한 통찰력, 깊은 진리에 대한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4장 17절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NIV에서 번역된 방법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으신 자 안에서 더 순결 할 수 있느냐 이제 잠시 생각하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그게? 모두가 그걸 몰라? 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왜 이 신비한 경험을 길게 설정했는가?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지 확인하십시오. 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순결"로 번역된 이 용어인 *타하르* 는 결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순결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거나 불순하다고

묘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특징지을 수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순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의 상태에서 얻은 깨끗한 상태를 가리킨다. 신은 결코 부정의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은 부정의 상태에서 달성된 상태인 *타하르* 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의 전통적인 번역을 따른다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우를 과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신비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순수하거나 덜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 대체 독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의 관점에서 깨끗할 수 있느냐?" 여기서 Eliphaz는 절대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끗하거나 의로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추구하면서 엘리바스는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제공하는 읽기가 상세한 히브리어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출판한 주석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의 전체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7:17[14:21-18:44]

7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욥의 연설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7-21절은 욥이 제시해야 할 가장 신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의 일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단지 숨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읽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내 심령의 괴로움으로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원망하리니 내가 바다괴물이나"입니다. 내가 적인가? 그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내 침대가 나를 위로하고 내 소파가 내 불만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당신은 꿈으로 나를 겁주어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경멸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 내 하루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17절에 이르러 매우 흥미롭고 친숙한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뭐길래 그렇게 우습게 만드냐?"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즉시 시편 8편의 내용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든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옴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끊으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그는 인류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쭐대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는가? 그리고 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그것들을 조사하고, 매순간 그것들을 시험합니다. 제발 저를 외면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초대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검토하도록 초대하는 시편 기자와는 매우 다릅니다. 옴에게는 “제발 눈을 떼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이고 물론 옴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암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목표로 삼았느냐? 내가 왜 짐이 되었느냐?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옴의 연설에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보다 점점 더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벨이 울리나요? 1장 4절과 5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가? 그래서 옴은

아들딸들을 위해 이 모든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생명체와 달리 옘은 자신이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람을 감시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보살핌과 보호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를 자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옘은 자신이 이미 재판받고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도록 정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그는 어쨌든 이미 재판이 벌어졌고 유죄 판결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7:20[18:44-19:31]

20절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옘은 그런 가능성조차 내버려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내가 어쨌든 호의를 얻지 못하여 당신이 나에게 불리하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의미할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가 한 일을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저를 벌하시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가상의 영역에서 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13:15[19:31-22:31]

한 구절 더. 나는보고 싶다; 좀 자세히; 13장에 있습니다. 욥기에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번역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입니다. 번역과 주석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번역에서 다양한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보라.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우와. 그것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체 히브리어 읽기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 대신에 그것은 부정인 Ketiv입니다. 둘 다 같은 *lo* (그에게)와 *l'o* (아니요)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또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또 다른 논평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다른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입자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희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기에 동의하는 다른 세 명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예", "만일", "보라" 또는 "하지만"이 아닙니다. "그래, 그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것은 "희망"으로 번역되는 단어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희망”과 “기다림”과 매우 가깝게 들립니다 .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는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좋아요. 나는 약간 다른 전술을 취할 것입니다. 나는 그 뒷부분에 동의하지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옴이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당신이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서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옴은 일종의 용기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묵묵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주장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어려운 구절이며 다양한 주석가들과 번역자들은 그것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 요약 [22:31-23:00]

사이클 1의 인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수사적 전략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연설이 대화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단지 화려하고 시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의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요약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욱의 반응 [23:00-24:40]

그래서, 1주기에서 엘리바스의 연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경건을 믿으십시오. 보복 원칙이 유지됩니다. 멸망하는 것은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없습니다. 그의 징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것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욱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 비참함의 정도가 내 부르짖음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나는 적어도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했다는 위로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낀다.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고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 주시면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나날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아무도 그러한 조사를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약간의 관용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요약된 욱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그러자 엘리바스의 충고는 하나님께 호소하여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대답: 거짓 겸손과 날조된 범죄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명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빌닷의 말과 욥의 반응 [24:40-26:23]

1주기에서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히 신이 공의를 왜곡한다고 제안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빌닷은 시대 의 대변자 의 지혜입니다. 감히 신이 공의를 왜곡한다고 제안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죽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즉 보복 원칙을 제공합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와요, 욥, 물건을 되찾아오세요.

빌닷에 대한 욥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와 논쟁하고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압도하기에는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묻는 것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흠 없는 자와 악한 자 모두 멸망합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신이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욥의 대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조언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복 원칙은 불가피한 결론을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욥의 대답: 나는 전통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결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다.

소발의 말과 욥의 반응 [26:23-28:00]

우리는 Zophar에 도착합니다. Zophar, 그가 흑백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오만? 당신은 당신이 너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썄,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해력은 하나님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포기하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십시오. Zophar는 매우 흑백 용어로 사물을 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반응. "나의 친구들아, 나를 놀려라. 너희가 잠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이려거든. 너희는 위로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제넘고 무지하게 말하느니라. 악인들이 면책을 받는 동안 나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 지혜와 힘. 내가 그에게 내 사건을 제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빈틈없는 변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통과 공포를 중단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라토리엄을 감안할 때 , 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내 잘못의 증거를 보여줘 이번 생이 내 전부니까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소발의 충고는 한마디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 당신은 하나님과 나 모두를 나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청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의 결론 [28:00-28:50]

결론적으로 이것이 1주기의 요약입니다. 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 각 친구의 연설은 의로움의 혜택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시리즈의 주요 초점은 친구들이 욥에게 혜택을 되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욥이 회복의 희망이 없고 그의 친구들이 최고의 가치로 둔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두 번째 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입니다. [28:50]